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5일
코스피지수	2103.61	▲ +24.57
코스닥지수	656.95	▲ +17.66
환율 (원·달러)	1212.30	▼ -6.70

##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승무원 브리핑실 전면 방역 실시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cabin attendant)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5일 자사의 객실승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25일 오후 5시부터 인천 승무원 브리핑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전면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임시 절차에 따라 터미널2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브리핑은 기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내 방역과 의심 승무원 자가격리 선제적 시행, 주요 사업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항·객실 승무원 합동 브리핑 항공기 옆에서 진행 등의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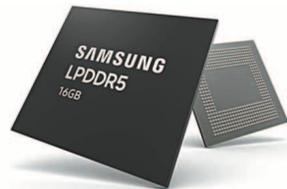
한편 동아닷컴은 25일 대한항공 관계자를 인용해 확진판정을 받은 승무원이 2주 전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어야 공식 브리핑을 할 수 있다"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삼성전자, 16기가 모바일 D램 세계 최초 양산

# 영화 9편 1초만에 처리...괴물이 온다

게이밍PC 사양 능가할 스펙  
소비전력은 20% 이상 줄어  
업계 유일 모바일D램 라인업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속도·최대 용량을 구현한 16GB LPDDR5 모바일 D램(사진)을 개발해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풀HD급 영화(5GB) 약 9편 용량인 44GB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이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고스펙을 대표하는 게이밍PC의 사양을 능가할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16GB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2GB 모바일 D램을 출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16GB LPDDR5(Low Power Double Data Rate 5) 모바일 D램은 2세대 10나노급(1y) 12Gb 칩 3개와 8Gb 칩 4개를 탑재했다. 풀HD급 영화(5GB) 9편 용량인 44GB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지만, 반

대로 소비전력은 20% 이상 줄었다.

무엇보다 전문가용 노트북이나 게이밍PC에 주로 탑재하는 8GB D램보다 용량이 2배 높아 고화질·고용량 게임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슈팅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을 더 빠르게 보고 반

응할 수 있는 등 스마트폰으로 콘솔 수준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8K급 초고화질(UHD) 미러링 가상현실(VR) 게임을 할 때도 보다 선명한 화질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16GB 제품 양산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5 모바일 D램 풀라인업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최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 부사장은 "업계 최고 성능의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해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놀라운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금년 중에 차세대 공정으로 신규 라인업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고객 수요 확대에 차질이 없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태국 대형 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 제품들. 사진제공 | 하이트진로

## '딸기에이슬' 동남아 3국 공략 하이트진로, 필리핀·태국·싱가포르 진출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의 편의점을 통해 현지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25일 이들 3개국 세븐일레븐 4600여 지점에 딸기에이슬을 신규 입점한다고 밝혔다.

딸기에이슬은 필리핀 2400여 지점, 태국 2000여 지점, 싱가포르 200여 지점에 이번 달 내로 입점한다. 동남아시아 지역 편의점 브랜드 1위인 세븐일레븐 입점을 소비자와의 접근성과 접점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량 증대는 물론, 브랜드 홍보 효과도 매우 크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소주세계화 선포 이후 동남아시아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 가정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단순 입점이 아닌 철저한 재고관리, 전략적 프로모션 진행, SNS를 통한 홍보 등 소주 판매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내 하이트진로의 소주 전체 판매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 상무는 "국가별 시장 맞춤형 전략과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 주류의 위상을 키우겠다"며 "법인을 거점 삼아 동남아시아 현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KCGI "델타항공 지분 취득에 시장 의구심"

코로나19 우려 전자투표제 도입 요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손잡고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에 참여한 사모펀드 KCGI가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취득에 우려를 표명했다.

KCGI는 25일 보도자료에서 "델타항공의 투자가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상대로 이뤄져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그룹의 경영진과 델타항

공은 한진칼의 지분취득과 관련해 법령을 준수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델타항공은 한진칼의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0.00%에서 11.00%로 높아졌다고 24일 공시했다.

한편, KCGI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KCGI는 "한진칼 및 한진의 이사회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재차 요구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재범 기자



"공기청정기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롯데백화점이 3월 31일까지 '공기청정기 추천 상품전'을 진행한다. 다이슨 퓨어쿨, 린나이 블루에어 클래식 505, 미로 맑음 등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공기청정기 3종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정정호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 변함없는 맑고 깨끗함...70주년 맞은 국민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올해로 출시 70년을 맞이하는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는 우리 민족의 입맛을 대변해 온 음료다. 매일 수많은 신체품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70년간 줄곧 우리 곁에서 변함없는 맛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칠성사이다'의 저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키워드를 통해 칠성사이다의 역사와 매력을 살펴보자.



칠성사이다 동대문 광고(왼쪽)와 칠성사이다 빈티지 패키지(가운데) 그리고 주요제품들. 사진제공 | 롯데칠성음료

출시 이후 누적판매 208억병 기록 천연재료 고집으로 소비자에 어필 일관된 이미지 가진 국산브랜드

### ●칠성 사이다의 탄생

칠성사이다가 처음 출시 된 것은 6.25 전쟁이 발발 직전인 1950년 5월 9일이다. 1949년 12월 15일에 최극덕, 박운석, 방계량, 주동익, 정선명, 김명근, 우상대 등 7명이 주주가 되어 세운 '동방정량음료합명회사'의 첫 작품이었다. 이들

은 각각의 성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칠성(七姓)'이라는 제품명을 쓰려 했으나, 회사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별을 뜻하는 성(星)자를 넣어 '칠성(七星)'으로 결정했다.

### ●독보적 시장 점유율

2019년 국내 사이다시장에서 칠성사이다는 70%에 달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품목으로 약 4200억 원대(2019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칠성사이다의 누적 판매량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208억 병(340mL 병 제품 기준)에 달한다.

### ●차별화되는 맛, 천연재료의 향미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편익(benefit)은 음료의 맛이다. 바로 이 맛의 측면에서 칠성사이다는 경쟁사 대비 차별적 위치에 있고 이것이 성공 비결이다. 첫째, 칠성사이다는 우수한 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물을 순수하게 정제한다. 둘째, 레

몬과 라임에서 추출한 천연 향을 사용하고 이를 적절히 배합하여 향미가 탁월하다. 셋째,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향미가 뛰어나면서도 합성향료나 합성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기에 당연히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맑고 깨끗함'을 내세운 일관된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일관된 이미지 자산을 가진 대표적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칠성사이다이다.

'맑고 깨끗한 자연, 맑고 깨끗한 이미지, 맑고 깨끗한 맛'은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칠성사이다의 브랜드 정체성이자 자산이다. 이 브랜드 정체성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마케팅 전략의 결실인 것이다. 칠성사이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색소, 무인공향료 음료라는 칠성사이다의 특징을 맑고 깨끗한 이미지 캠페인으로 차별화 시켜 경쟁 브랜드를 압도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인천-오uckland 직항노선 6월 30일까지 운항 중단

에어뉴질랜드가 지난해 개통했던 서울 직항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에어뉴질랜드는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인천)-오uckland 직항 노선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발 운항 및 아시아 여행지 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결정으로 노선은 7월에 정상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에어뉴질랜드 서울(인천)-오uckland 직항 편은 2019년 11월 23일 운항을 시작했다. 성수기 동안 운항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설하는 등 인기노선으로 떠올랐으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항중단을 맞게 됐다.

에어뉴질랜드는 운항 중단 기간 동안 예약자에게 예약 변경 혹은 취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연장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휴장을 29일 오전 6시까지 연장했다. 강원랜드는 23일 카지노를 휴장했고, 이후 25일까지 연장했는데, 이번에 4일 더 늘렸다.

강원랜드는 임시휴장 기간 동안 추가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입직원 문진표 작성 등을 통해 휴무일 이동경로가 확진자 동선과 겹치면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카지노 개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모니터링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